"오늘도 하얀 도화지 위에 꿈을 그립니다."

-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15살 지선(가명)이의 이야기 -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인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쌍둥이 동생 지선이는
어느 새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버린 키만큼, 늘어나는 교육비는
할머니와 가족 모두에게 점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통증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할머니는 정부지원금으로는 몇 해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아내기도 버거운 형편입니다.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쌍둥이들, 그 중 특별히 미술에 재능이 있는 지선이 !

지하 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꿈만큼은 커다란 지선이가
화가에 대한 꿈을 놓지 않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지선이의 미술 교육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